

2019년도 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 30:23)	NEW 순복음Life 제 35호	발행일 : 2019. 3.10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	---	---



<이달의 간증>

-유혜진 성도-

할렐루야,

이제는 성도가 된 유혜진 성도입니다^^

저에게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증을 쓴 계기는 교무행정사를 준비하며 합격을 하든 안하든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나타내겠다고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약속했습니다.

저의 처음 교무행정사를 준비 할 때부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는 현재 2월 6일은 아직 최종합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험 전인 12월 초에 원당중학교 교무행정사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 면접을 포기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20일 쯤 당진교육청에 교육공무직원 공고를 보시고 엄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공고를 보기 전에 1월에 대만선교여행(1월14일-1월18일), 2월에 결혼식(2월16일), 신혼여행(2월17일-2월21일) 등 한국에 없고 신경 쓸 일정들이 많은데 ‘시험 날짜, 면접 날짜가 겹치면 어찌지’하며 호들갑을 떨며 떨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본 순간 시험날짜는 1월 26일, 면접일은 2월 11일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이 많은 일정과 하나도 겹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놀랍고 ‘주님이 날 위해 계획하신 내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 대학을 가려는 것보다, 예전에 직장에 취직하려는 것 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심을 믿으며 제 인생 첫 성전 밭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신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밭기를 하면서 저의 부족했던 기도가 회복됨을 느꼈고 눈물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벽기도를 다니며 주님과과의 소통함, 예배의 감사함, 말씀의 즐거움,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써 자량이 되겠다는 것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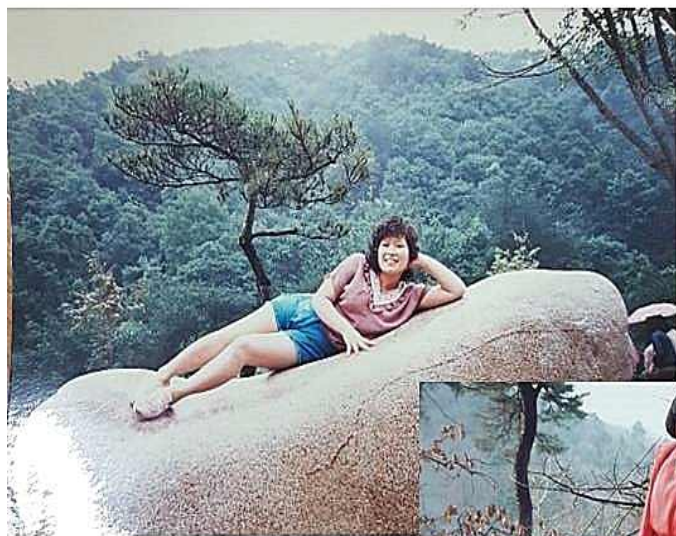
그렇게 대만선교여행 후 시험을 일주일 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며 매일 1시 기도회, 성경공부, 찬양연습 5~7시간을 하며 주님을 위해 힘쓰고 싶은 마음과 공부를 잘 못해 불안한 마음이 매일 같이 부딪혀 힘들었습니다. 1월 실천표에 '믿음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나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고 잘돼야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날인 1월 25일 금요일야에 반주를 하며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라는 눈물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엄청난 서러움과 부담감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믿음의 동역자인 김성광 성도님이 매일 '퐁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가 되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850:1도 이기게 하셨는데 뭐가 두렵냐며 많은 격려와 기도로 지원해줬습니다^^ 이렇게 시험 전에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려고 많은 면에서 함께 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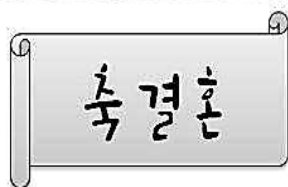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도 보고 모의고사도 풀고 엄청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고작 문제집 2권을 푼 저는 위축되고 불안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 계속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시작되자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가볍게 해주심을 느끼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3문제 정도를 찍으면서 옆을 봤는데 이미 다 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 저의 마음은 후련하고 결과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잘 봤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합격입니다! 저의 힘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주님께, 성도님들께, 사람들에게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하고 어린 신앙이라 계속해서 기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심을 알고 이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어머님의 꽃미모
2~대로
물려받으셨습니다



1. 권사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 해 주세요.

친정 엄마가 신앙의 삶을 사셔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4남 4녀 중 다섯 번째 딸로 세상에 나왔는데 제가 어려서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셨지요. 덕분에 부모님과 온 가족은 모두가 동경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부유했어요. 광에 버 가마니를 쌓아놓고 살았을 정도였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4남 4녀들의 자녀들에 싸우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다고 모두 착하고 예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이 넘치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니다.

2. 지금 남편이신 윤흥기 권찰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또 어떤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셨나요?

다니던 직장 언니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 이름이 친정 아버지의 이름과 같아서 재밌었구요. 그래서 부를 때 거꾸로 기흥씨라 불렀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이름과 같아서 호감이 생겨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끔찍지가 썩일려니 키도 커서 멋져보였고 듬직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거예요. 다 믿음직스러웠고 그냥 다 좋았어요.

3.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그 중 아들 종호가 크게 아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모든 치료에 과정을 어떻게 극복 하셨나요?

첫돌 때 ‘심장 판막증’ 으로 진단되어 가슴을 열어야 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시리고 아픈 기억입니다. 그때 초성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 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어떤 성도님은 피가 부족한 종호에게 피를 나누어주시기도 했었지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종호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4. 권사님 시대는 요즘 젊은 세대와 같지 않고 아내들이 많이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키던 시대입니다. 권사님은 무엇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 오셨는지요?

음~~~ 연애할 때 남편은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반대하더라구요.. 거기다 술도 너무 많이 마시구요~ 그렇게 등직하고 모든 것이 좋아보이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아보니 저와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구요. 술한 날들을 눈물로 보내며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 안해본건 아닌데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친정 부모님과 모시던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평안 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5. 지금 적지 않은 연세로 율동 단원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자랑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역을 통하여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한번 씩 앞에서 율동할 때 틀리기도 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역이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리브가 회원님들께서 더 좋아하시고 뿌듯해 하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6. 평신도와 중직자의 신앙은 너무 다릅니다.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이전과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공적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이전보다 봉사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을때도 있구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 아직 크게 보이지 않지만 가정예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크게 열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7.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권사님을 보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언제 화가 나시나요? 그럼 그 분노는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어지간하면 화는 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대화로 풀어요. 그래도 안될때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남편이 신앙으로 견고하지 못할 때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믿음의 부부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반복하여 넘어지니 가슴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8. 요즘 눈에 확 띄게 날씬 해 지셨어요~ 방법 좀 다른 성도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하하하하~~쑥스럽습니다. 이사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더니 좀 빠졌구요. 이사한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어서 런닝머신으로 빨리 걷기를 서너달 했습니다. 은선이 결혼도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했는데 덕분에 5kg 정도 뺐어요. 그래서 신부 엄마 한복 자태가 남다르게 예뻐답니다^^

9. 꽤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의 일을 접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그전엔 원샷만 되면 일 그만두고 전도만 하며 살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욕심인지 일을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이제 퇴직까지 3년 남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10. 권사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어떻게 견디시고 지금의 행복을 만드셨습니까?

움켜쥐면 부스러질것만 같은 이제 갓 돌이 지난 작은 아기 종호가 아팠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11.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은 많은 기도들이 있으실텐데요~ 기억나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당진으로 이사와서 땅을 샀지요. 남편이 구원 받았구요. 넓은 집으로 이사도 시켜 주셨습니다. 딸 시집도 잘 보냈고 기도대로 사위는 등직하고 잘 생겼습니다~~

12. 지금 권사님께서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의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도울겁니다. 구급차도 부르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우선 목숨부터 살려놓겠습니다. 내 가족을 누군가가 그렇게 살려 놓는다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돕겠습니다.

13. 가정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남에 식구가 내 식구가 되려면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든든한 사위와 어떻게 지내실 작정이세요?

사위가 아들같습니다. 새로 생긴 아들과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낼겁니다. 특히 은선이와 아름다운 신앙의 단을 쌓아나가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속히 태에 열매가 있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고 다복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14. 이제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 되었네요~ 누구와 어디를 여행하고 싶으세요?

지난 3월 1일에 리브가 회원들과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새 식구도 생겼는데 남편과 아이들~ 사위까지 다 같이 해외 성지순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날이 꼭 오겠지요?

15. 음식 솜씨가 남다르십니다. 비법 조금만 알려주세요~

엄마랑 언니가 음식솜씨가 아주 좋아요. 저는 그저 조금 따라하는 정도구요. 저는 좀 웃기긴 한데요~ 음식엔 정성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성이 비법이지요~ 그리고 특별한건 없고 간을 잘 맞춥니다.

16. 남편 윤흥기 권찰님의 장점 3가지만 말씀 해 보세요~

우선 성실한걸로 보면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실하고요. 맞벌이 부부다 보니 가정 살림도 참 잘 도와줍니다. 특히 빨래를 많이 도와줘요. 음~~ 그리고 또 제게 무엇을 사줄라치면 그중 가장 좋은 것으로 사줍니다.

17. 그럼 자신의 단점 3가지를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용기가 부족해서 결단력이 없습니다 . 무엇이 말하고 싶을때도 내성 적이라 말 못 할 때가 많구요. ㅎㅎㅎㅎ 더 생각이 안나네요.

18. 권사님의 남은 인생을 설계 해 주세요.

신앙으로만 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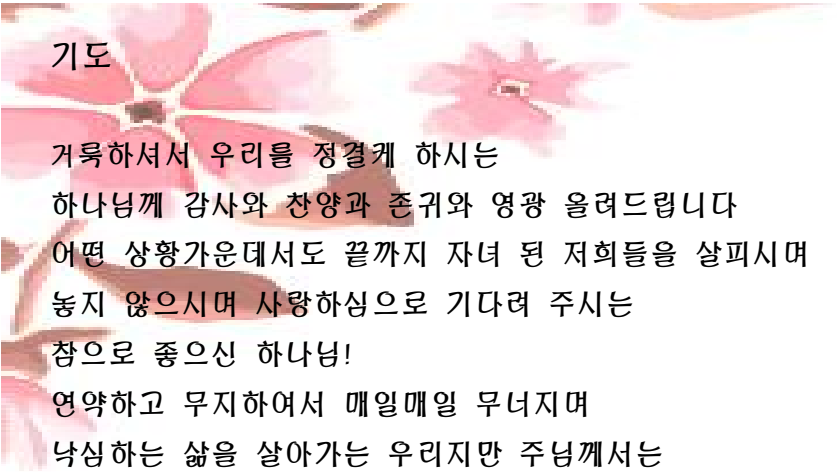
감사릴레이

-이영주 집사-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은 시시때때로 풍성하고 넘칩니다. 특히 이번에 승혁이가 군 입대를 하고 5주 동안에 훈련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수료식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운동만 해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만남들에 잘 적응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길 애쓰고 힘쓰게 하시는 아들이 대견하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3주의 2차 훈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 강연순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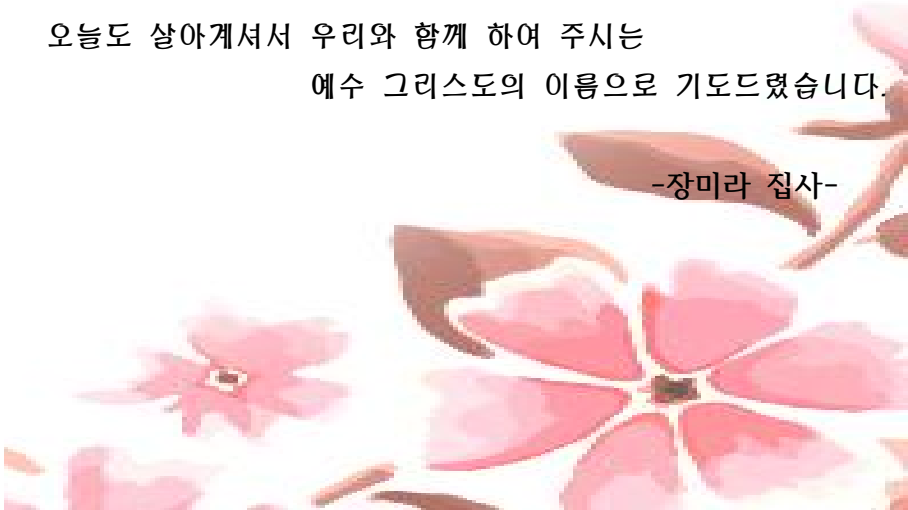
기도

거룩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녀 된 저희들을 살피시며
놓지 않으시며 사랑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매일매일 무너지며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사용하심에 합당하도록
깨끗함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날마다 깨끗하고 순전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며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성도 모두가 하나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뵙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민족 해방을 위해 만세 운동을 한지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열사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 운동엔
많은 기도예 협력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소국으로 짓밟히고 천대받으며 피눈물 흘리던
연약한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이 작은 나라를 주님 품으로 품으신 이유가...
저들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다한 믿음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이어 받겠습니다.
어렵고 어수선하며 사리사욕에 눈먼 위정자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그때 살려 주셨던 것처럼
다시 또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을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미라 집사-





역시 전지훈련은 올 참석 ^^



**우리 간지남들
인생샷 하나씩
건져오심.**



**모든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19 DJFGCC 척사대회





엄마,아빠 오늘대박



원준아 엄마만 믿어



목사님 집중



즐거운 윷놀이



왕언니 가즈아



아름다운 이야기

그냥 의사니까 하는 일이다. 두 살 때 안구암에 걸려 큰쪽 눈을 다 들어낸 미혼 여성, 한 쪽 귀가 없는 아이, 입천장이 뚫리고 한 쪽 눈마저 없어 물을 마시며 눈으로 나오는 남성... 선천적인 장애,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안면장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바깥출입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단돈 1만원에 안면장애 수술을 해 주는 한성익 의사.

그는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에게 막대한 수술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고 1만원을 받고 수술을 해줍니다. 환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미안해 할까봐 1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수술을 해주는 걸까요? 그는 자신 역시 부정맥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왔습니다. 심장수술을 받으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터라,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말합니다.

"의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영리가 우선되는 시대에 한성익 선생님의 두 손은 사랑이고 고귀한 나눔이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소년의 변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상이용사였다. 거동이 몹시 불편해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나를 향한 동정도 없었다. 병신의 아들이라며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학교에도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란 애길 하지 않았다. 자괴감은 그림자처럼 나를 둘러쌌고 가난은 공기처럼 당연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신음하듯 말씀 하셨다.

“아들아 미안하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을 때도 그랬다. 병원에 가서 국가 유공자의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결국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가난하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조차 부끄러워지고, 또 미안해지는 세상. 나는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제법 이른 나이에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딱 한 명 예외가 있었다. 부끄럽게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더니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신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의사. 의사 선생님은 마음을 담아 나를 격려하며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웃어른들이 곧잘 하는 참 진부한 말. 하지만 이 말은 그날부터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오늘날 나를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 받아야 한다

부끄러움에 주저하듯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라는 말을 한 의사가 없었다면 그 소년은 오늘의 이국종 교수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자랑스러움으로 변화시킨 근사한 한 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꾼 것이죠. 이렇듯 한 사람의 꿈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다른 한 사람에 의해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사한말, 따뜻한 말 한 마디는 누군가의 방황을 끝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답해주나요?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겠니?”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니?”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그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꿈을 가진 이에게 혹은 길을 잃고 좌절하는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넌 반드시 해낼거라 믿어”

“네 꿈 참 근사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힘내”

“네가 나는 참 자랑스럽다”

지금 당신의 격려를 기다리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지금 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골든타임 일지도 모릅니다.

아주경제에서 퍼옴



우리는 다니엘 유초등부

겨울의 끝자락에 와있던 2월의 행사를 소개합니다. 눈을 기다리던 한겨울에도 꼭꼭 숨어 있던 생각지도 못한 늦은 함박눈은 잠시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엔 충분했지요~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듯 겨울을 붙잡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2월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3부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맞아 목사님께 세배하기가 있었는데요. 목사님께 세배하기 전에 유혜진 선생님이 준비해 온 PPT자료를 보면서 손의 위치와 일어나서 인사하기 등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목사님께 세배를 드리고 좋은 덕담 말씀을 듣고 또 용돈을 받아 신이 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둘째 주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김은희 선생님이 준비한 다양한 성경관련 퀴즈 풀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할 때는 쉽게 제한 시간 안에 3글자로 된 라면 이름 5가지 맞추기도 하고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며 친구들이 몸짓으로 하는 설명을 맞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는 생일파티 및 마니또를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어떤 친구와 마니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마니또가 되어주면 도와 줄때의 기쁨을 배우게 될 것이며 도움 받을 때는 많은 힘이 생길 것입니다. 생일파티는 1월과 2월 생일자 친구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각자 친구들에게 롤링페이퍼를 작성해주고 생일 축하노래도 불러주며 맛있는 다과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넷째 주는 우리교회 큰 행사 중 하나인 척사대회입니다. 성도님들의 척사대회 만큼이나 우리 친구들이 하는 척사대회도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고 웃을 잘 놀아서 모와 웃이 많이 나오면 이기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우리 친구들 누구하나 마음 상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성경 숨은그림찾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숨은그림 : 낚시바늘, 빗자루, 스포이드, 다리미, 고래)

* 모두 소중한 존재

- essay.63 -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더 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지금 그가 투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가로 세로 퍼즐 <3회>

7							9		6
10	8					2		10	
			1						
		5							
			6		4		8	5	
		3			7				
	4								

가로 문제

세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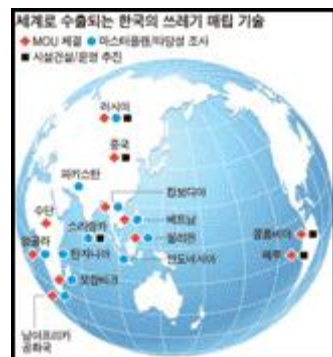
1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유대 총독에 임명됨(느 6:15-16)	1	예루살렘을 포위한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왕하 25:8-20)
2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받은 이름 (창32:22-28)	2	아모스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중의 한사람(사1:1)
3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을 때 찾아와서 꾸짖은 선지자(삼하12:1-12)	3	엘고스 사람으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한 선지자 (나1:1)
4	바벨론 1차 포로귀환때 스룹바벨과 함께 백성을 이끌고 온 지도자 (스 2:2)	4	아론의 셋째 아들 (출9:24)
5	베냐민 정탐꾼 발디의 부친 (민13:9)	5	주님 승천후 안나스와 함께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 (행4:6)
6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 하여 낳은 아들(삼상1:1, 10:20)	6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고 해몽까지 했던 잡혀간 이스라엘 지도자 (단 2장,4장)
7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전 이 사람이 심문에 가담했었다.(행25:13)	7	예수님이 지날 때 뛰어와서 구원을 청한 소경의 이름 (막10:46)
8	의학을 공부한 후 예수를 믿은 후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했다. 사도행전 저자(행1:10)	8	세리장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서 머물다 갔음 (눅 19:1-10)
9	요바의 아내로 선행과 구제로 치안 받은 사람 도르가로 불리웠다 (행 9:36-40)	9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하려고 했던 곳 (욥1:3)
10	다니엘의 세 친구중의 한사람 (단 1:72)	10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숨겨준 가나안 사람 기생 (수2:1)

U턴 쓰레기

우리나라는 매년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삶의 편리를 위해 일회용 봉지 일회용 포장지등 일회용이 넘쳐나는 현 시점에 해외로 수출했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U턴 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일회용품을 수거 해 가는 업체에서 일차로 재생 가능한 제품을 고르고 재생이 불가능한 것들은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각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청을 두고 하청 업체에서 처리하게 하는데 브로커를 이용하여 해외로 쓰레기를 수출하는가하면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되다보니 해외로 보내졌던 쓰레기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고 그 쓰레기들의 처리 방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보낸 업체는 있어도 받을 업체는 이미 폐업을 한 회사이거나 브로커를 통해 나간 쓰레기라 이 모든 처리는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되돌아온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부터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분리를 정확히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생산 과정의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생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을 적극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사용어 Briefing

수소경제

수소가 주요 원료원이 되는 산업사회를 수소경제로 정의합니다. 화석연료로 산업과 사회가 움직이는 탄소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석유 고갈에 따른 대체재로 수소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으며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수소경제'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핀세이빙

핀세이빙이란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에 즐거움을 접목해 금융소비자가 오락을 즐기듯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쿠팡플렉스

쿠팡플렉스는 소셜커머스 쿠팡이 시행 중인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쿠팡플렉스는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직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배송자들은 기존의 로켓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과 구별해 쿠팡플렉서로 지칭됩니다. 쿠팡플렉스는 원하는 요일에, 원하는 지역에 배송하고 소득을 올리는 공유경제형 일자리로 시간당 최소 2만 5천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지능

데이터지능이란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데이터 식별 기능 등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이나 구매 목록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래가는 선물.

말자와 달숙이는 친한 친구 사이이다.

어느 날 말자가 달숙이에게 찾아와서,

남자친구에게 받은 금반지를 자랑하였다.

말자 : “우리 자기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갖고 싶다니까,
금반지를 사주는 거 있지. 호호호~”

달숙 : “정말? 나도 갖고 싶은데 해봐야 겠다.”

그리고 달숙은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

달숙 :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가지고 당장 튀어와!”

그리고 남자친구가 20분 뒤에 도착하였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를 손
에 들고.

그런데 반지치고는 쫘 커보인다. 달숙은 목걸이나 좀 더 근사한 거겠지 하고
풀어보았다.

선물을 풀어본 달숙이는 뒤로 넘어갔다. 선물은 이름하여……

"방부제!!"

성경 가로 세로 퍼즐 <3회> - 정답												
바								다	비	다		
디								시		니		
메	삭							이	스	라	엘	
오	개							사		합		
	오			느	헤	미	야					
			라	부								
				사	무	엘			누	가		
				라		르				야		
			나	단		아	그	립	바			
	르	흠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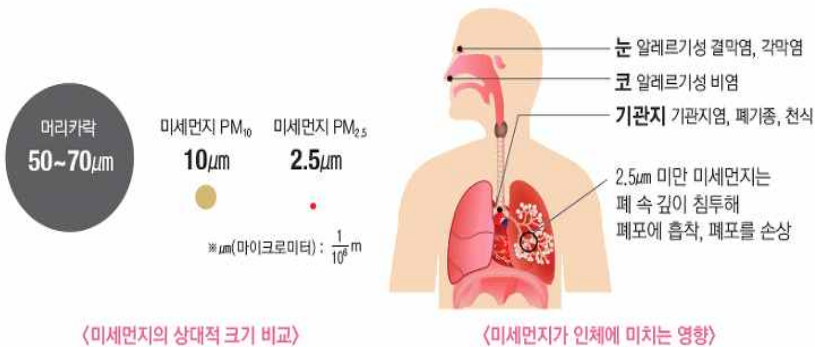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남포서2살5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미세입자들은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구성된 것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 내에 유입될 수 있다.
-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사망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대부분의 연구를 따르면 장기적, 지속적 노출 시 건강 영향이 나타나며 단시간 흡입으로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린이·노인·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군은 일반 인보다 건강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존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오존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 민감군

- 보통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매우나쁨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미세먼지 행동요령 - 일반인

- 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나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편지

사형선고 받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쓴 조마리아 여사 편지 전문이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거라.



어머니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천국에서 만나 뵙겠다는 가슴 아린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라 잃은 슬픈 백성들 그 생각에 마음은 천리를 달립니다.

어머니, 그 무엇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운 사람들 그 생각만이 핏줄이 터질듯 다가옵니다.

어머니, 불의의 총칼 앞에 죽음은 오히려 희망입니다.

되찾은 내 나라 내 땅에서 활짝 웃으시는 어머님 얼굴

뵙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아래는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께 드린 유서다.

어머니 전상서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옆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주시니 훗날 영원의 천당에서 만나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現世)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안 의사의 장남)는 장차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이상이 대요(大要)이며, 그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겠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다음은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 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출처] 안중근 의사에게 쓴 조마리아 여사 편지|작성자 성기태

◎ 이달의 교회소식

1. 찬양예배 / 3월 3일 오후5시
2. 영화관람 / 3월 4일~5일 영화명 : 항거
3. 탁구대회 / 3월 16일 오후3시
4. 헌신예배 / 에스더여선 - 3월 17일 오후7:30
마리아여선 - 3월 31일 오후7:30

◎ 공지사항

1. 3월 생활실천표어 /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2. 3월 신앙서적 / 위기의 그리스도인 '로이드 존스' 저

◎ 이달의 교우소식

1. 이사심방 / 박순옥성도 - 3월 12일(화) 오전11시
2. 취업 / 유혜진성도 - 3월 1일 우강초등학교 교무행정사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